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 활용 방안 탐색
—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영진 순천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
- III.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의 특징
- IV.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 설정 및 활용 방안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빅 아이디어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식의 습득을 지양하고, 다양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제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에 대한 지향을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진들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조화하면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보여줌으로써 교과 지식을 통합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교육부, 2015: 136).

하지만 ‘핵심 개념’을 활용한 접근이 비교적 적합해 보이는 과학 교과나 사회 교과에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넘어, 전 교과에 확대 적용 함으로써 상당한 혼란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국어과의 경우 핵심 개념이나 빅 아이디어에 대한 국어 교육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참조할 만한 이론적 검토나 실행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핵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추출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¹⁾ ‘핵심 개념’을 추출한다 하여도 핵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그것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련의 논의를 하기에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주어진 시간과 예산은 부족 했으며,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 가 국어 교육 현장과 국어교육 학계에 불리울 파장을 고려해야 했다.

결국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은 ‘성취 기준으로부터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내용 요소로부터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추상적이고 공통된 개념을 추출하여 ‘핵심 개념’으로 명명하는(김창원·가은아·김경주·남민우·서영진·강보선 외, 2015: 67)’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내용 체계가 내용 선정과 조직을 위한 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성취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결과적으로는 개별 내용 요소를 포함하는 용어로 ‘핵심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핵심 개념’이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통어하는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라도, 이러한 내용 체계 설계 방식은 결코 내용 체계의 일반적인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용 설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내용 체계의 재구조화를 시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국어 교과의 맥락에 맞게 활용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1) 본고는 ‘핵심 개념’과 핵심 개념을 구별한다. ‘핵심 개념’은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을 뜻하는 고유 명사이며, 핵심 개념은 낱낱의 사실이나 정보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를 관통하는 영속적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다.

둘러싼 오랜 쟁점을 해소하는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기에 내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했고 내·외적 여건도 미흡했다.

지식의 심층적 이해와 이를 통한 적용 및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빅 아이디어에 대한 지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과정 설계에 활용하고자 했던 애초의 도입 취지나 역할을 고려하여 국어과에서 다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천경록, 2017: 58)이라는 아쉬움의 표현, 차후 국어 교육 외부에서 국어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박영민, 2016: 68)는 당부를 고려할 때도, 빅 아이디어의 교육적 가치를 국어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을 대비하여,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방안과 이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선결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국어 교과의 관점에서 핵심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피고, 해외 자국어 교과 교육과정 중 ‘빅 아이디어’를 활용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British Columbia, 이하 BC주)의 자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얻은 통찰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설정 및 제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²⁾

2) 본고는 빅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맥락에서 재해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빅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핵심 개념’은 빅 아이디어로서의 속성 이외에 교과의 중심 내용 요소나 대표적인 주제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핵심 개념 본래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교육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능이나 태도 범주에 속하는 것들도 핵심 개념으로

II.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

1. ‘빅 아이디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역할

‘빅 아이디어(big idea)’는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들을 학습하여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해(understanding)’라는 용어로 재해석한 Wiggins & McTighe(2005)의 이해 중심 교육과정 논의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Wiggins & McTighe(2005)는 ‘이해(understanding)’에 이르기 위해서 빅 아이디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빅 아이디어는 독립적인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념·원리·모델로서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학문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Wiggins & McTighe, 2005: 35).

빅 아이디어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일종의 조직 원리로서, 교육 내용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 해당한다. Wiggins & McTighe(2005)는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친숙할 필요가 있는 것(정보와 사실)-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개념과 기능)-빅 아이디어(원리 및 일반화)’로 구분하였는데, 빅 아이디어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빅 아이디어를 학습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빅 아이디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이나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예측하거나 다양한 상황으로 전이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개념이나 원리(Wiggins & McTighe, 2005)이기 때문이다.

빅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 개념이 아니

선정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포섭하기에는 개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 탐구의 과정으로 힘들게 얻어지는 것이며 추상적인 것이고(Wiggins & McTighe, 2005: 67), 특정한 교과에 얹매이지 않고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간학문적 성격을 띤다(Wiggins & McTighe, 2005: 68). 이에 빅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구체적인 것들을 잊어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지니고 있어야 하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이해가 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8: 5-6).

빅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지식의 구조’에 견주는 경우가 많다. 지식의 구조와 빅 아이디어는 둘 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이자 학습의 전이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이의 범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지식의 구조를 알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용과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다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국한된다. 즉 지식의 구조가 미치는 전이 효과는 실제 삶에 대한 전이라기보다 유사한 ‘학문 분야’로의 전이에 국한된다(이홍우, 2007: 382). 물리학에서 발견한 지식의 구조는 오직 물리학을 더 배우는 데 있어서의 전이 효과를 뜻한다(이홍우, 2007: 382). 지식 이외의 실제 삶으로의 전이 효과를 간과했다는 점은 Bruner 자신도 인정하였다(Bruner(1971/2006); 한혜정·이주연, 2017: 209 재인용). 이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지식의 분절화를 강조함으로써 교과 간 융합이나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홍후조, 2012: 120-121).

하지만 빅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실생활에의 전이를 고려한다(한혜정·이주연, 2017). Wiggins & McTighe(2005)는 전이를 모든 수업의 목적으로 보며(Wiggins & McTighe, 2005: 44), 교과에서 학습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적 방법으로 백워드 설계를 제시한다. 백워드 설계에서는 심층적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적 맥락의 평가 과제를 구안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Wiggins & McTighe(2005)가 실제 생활

로의 전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빅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문헌들인 Wiggins & McTighe의 저서에서 교과 간 연계나 통합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과 간 연계 및 통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한혜정·이주연, 2017: 213). 그러나 교과 교육을 통해 발달된 능력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발휘되는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분과주의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 간 연계 및 통합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천경록(2017: 51)도 빅 아이디어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지식의 구조’를 계승하고 있지만, 탈 맥락적인 지식 전달하기로 전락하기 쉬운 교과주의 전통에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즉 Wiggins & McTighe(2005)의 빅 아이디어는 교과 간 통합의 연결 고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Bruner(1960/2006)의 지식의 구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 빅 아이디어는 교사들에게 교수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일종의 렌즈로 기능한다. 수업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렌즈가 되며,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을 결정하는 렌즈가 된다. 학생들의 사고와 이해를 관찰하고,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일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렌즈, 학부모들과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렌즈가 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8: 12-13).

빅 아이디어 기반 교수·학습은 교과별 단편적 지식과 기능에 매몰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에서 벗어나 맥락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는 교과의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속적 이해와 적용 역량을 갖추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예컨대 ‘세계는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간학문적 빅 아이디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텍스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거나 ‘텍스트에는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국어 교과 빅 아이디어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

한 영속적 이해를 위해, ‘하나의 현상은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는가?’와 같은 본질적 질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탐구 학습을 위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뉴스의 관점 파악하기’, ‘필자나 화자의 의도 분석하기’, ‘해석의 타당성 평가하기’, ‘다양한 의견 존중하기’ 등과 관련된 활동 자료 개발이 이루어진다.

요컨대, 빅 아이디어는 개별적 사실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 이력을 갖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라 할 수 있다.

2. ‘빅 아이디어’의 국어 교육적 의미와 역할

국어 교육의 맥락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해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면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한 논의가 서서히 시도되었다. 김창원(2014: 14)은 빅 아이디어가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며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결 개념(혹은 관통 개념)’으로 번역하였다. 김규훈(2015: 39-40)은 빅 아이디어의 속성으로 ‘핵심 내용’, ‘개념적 연관성’, ‘전이 가능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빅 아이디어를 다른 교과와 개념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이 가능성을 지닌 특정 교과의 핵심 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김규훈, 2015: 40). 천경록(2017: 51)은 국어과에서 핵심 개념은 ‘국어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 생성적, 영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개념, 원리, 기능,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첫째, 핵심 개념은 영역별로 제시된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 둘째, 핵심 개념에는 전통적으로 국어과에서 중요시했던 개념, 원리, 기능, 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 셋째, 핵심 개념은 빅 아이디어와 유의 관계에 있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부연한다(천경록, 2017: 52).

천경록(2017)의 ‘영역별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관점은 김규훈(2015)의 ‘전이 가능성’과 ‘개념적 연관성’ 속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통합의 연결 매개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천경록(2017)의 ‘국어과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관점은 김규훈(2015)의 ‘핵심 내용’ 속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교과 고유의 본질을 보여주는 근본 개념으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빅 아이디어에 대한 교과 연구가 활발한 교과는 과학과인데,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재개념화하는 방식은 빅 아이디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과학과에서도 빅 아이디어 또는 핵심 개념은 교과 고유의 내용을 다루는 개념이면서도 간학문적 통합 개념이다. 이는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과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지현·정아준, 2017). 예컨대 캐나다 온타리오 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빅 아이디어에 준하는 개념으로 ‘근본 개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는데, 근본 개념은 시간을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것인가 과학적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물질’,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 ‘구조와 기능’, ‘지속가능성과 책임’, ‘변화와 지속성’을 근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8: 5-6). 방담이·박은미·윤희정·김지영·이윤하·박지은 외(2013)도 과학과 빅 아이디어로 ‘다양성, 구조, 상호작용,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과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면서, 이에 대한 영속적 이해는 실제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기에 비추어 볼 때,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는 영역 및 교과 간 연계를 추구하는 통합 개념이자 국어 교과의 정체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근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낱낱의 사실, 기능, 원리, 태도 등을 연결하고 관통하는 중핵적 내용으

로 국어 교과의 근본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교과나 비교과 영역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³⁾

III.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의 특징

해외 교과 교육과정 중 빅 아이디어(big idea) 또는 그 유사 용어(key idea, core idea, key concept)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교육과정으로는 미국 뉴저지 주(big idea), 캐나다 온타리오 주(big idea), 뉴질랜드(key idea), 미국 NGSS(disciplinary core idea), 캐나다 BC주(big idea), 호주(key idea) 교육과정 등이 있다. 빅 아이디어는 주로 과학과, 사회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데, 캐나다 BC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과 교육과정이 동일한 형식 틀을 따르고 있어 자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BC주 교육과정은 역량 개발을 향한 교육적 요구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최신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도 유용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캐나다 BC주의 자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영어과(English language arts)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빅 아이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⁴⁾

3) 이와 같은 정의는 서영진(2019)을 토대로 함을 밝혀둔다.

4) BC주 교육과정은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으로, 관련 자료는 개정 교육과정 전용 홈페이지 (<https://curriculum.gov.bc.ca>)에 게시되어 있다. 본고는 검색일 기준(2018년12월)으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BC주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림 등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1. 캐나다 BC주 재설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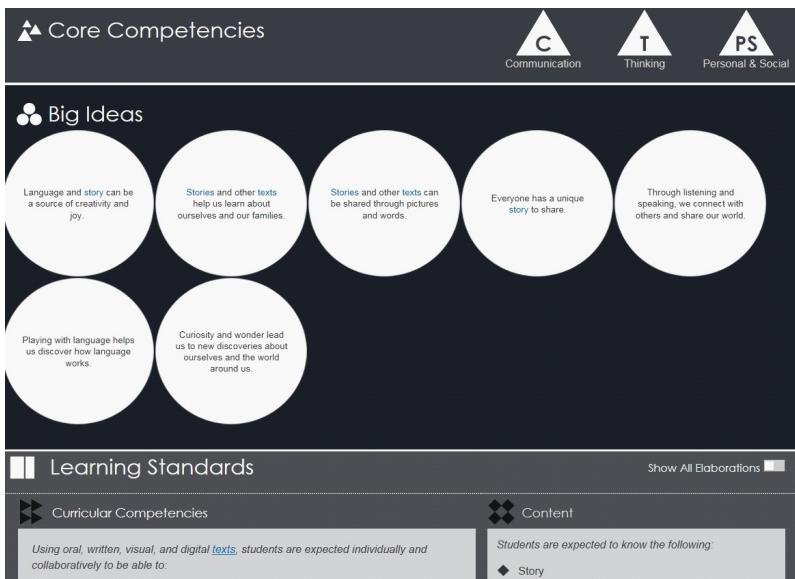
BC주의 재설계 교육과정(Redesigned Curriculum)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유능한 능력을 갖춘 교육 받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필수 학습(Essential learning), 문식력과 수리력의 기초(Literacy and Numeracy foundations) 강화이다. BC주 교육과정은 상기의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개념 기반(concept-based)·역량 주도 (competency-driven)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개념 기반 학습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지식을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개념, 원리, 일반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지향하는 것으로, 다른 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의 전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역량 주도 학습은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념 기반 학습과 역량 주도 학습은 실제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학습에의 몰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5).

BC주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역량 주도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알기 - 행하기 - 이해하기(Know - Do - Understand)’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1〉BC주 재설계 교육과정 모델(B. C. Ministry of Education, 2015; 권점례 외, 2018:53 재인용)

교과 지식과 관련된 내용 알기, 교육과정 역량 행하기, 빅 아이디어 이해하기를 통해 심층적 학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 모델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빅 아이디어(Big Ideas)’,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 역량을 포함하는 ‘학습 기준(Learning Standards)’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그림 2>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BC주 교과 교육과정 제시 방식

‘알기’는 학년별 필수 학습 주제와 지식을 상세화한 ‘내용(Content)’에 반영된다. ‘행하기’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할 기능과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역량(Curricular Competencies)’에 반영되는데, 이것은 교과 별로 특화되어 있지만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해하기’는 교과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 일반화와 원리인 ‘빅 아이디어(Big Ideas)’에 반영된다.

2.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및 구성

BC주 교육과정에서 자국어 교과는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문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돋는 기본 과목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⁵⁾ 즉,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BC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국어 교과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을 고려할 때, BC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표현과 이해 능력을 넘어서, 언어문화에 대한 감식안, 삶에 대한 통찰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상당히 넓다. BC주 교육과정에서 자국어 교과를 이수한 후 성취해야 할 교육의 목표는 8가지인데,⁶⁾ 다양한 형태의 언어활동에 능통하고 고차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여 캐나다는 물론이고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5) 또한 언어와 텍스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신의 독서, 작문,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언어와 텍스트가 갖는 힘, 아름다움, 예술성 등에 대한 감식안을 발달시키는 과목,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며, 실제와 가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려 깊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돋는 과목,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점에서 원주민에 대한 역사적·현대적 이해를 얻게 되는 과목, 다양한 정보와 상호작용하며, 디지털 매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 6) 모든 형태의 언어에 능통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용자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열정을 성취한다. • 언어와 학습을 평생의 기쁨, 호기심, 열정의 원천으로 인식한다.
• 개인의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언어와 텍스트에 대해 창조적, 비판적, 그리고 반성적으로 생각한다. • 디지털 매체의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사용자가 되어 새로운 모드와 언어 사용 도구에 적응할 수 있다. • 캐나다 원주민 및 기타 캐나다, 국제 텍스트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신, 다양한 문화, 복합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 캐나다 원주민들의 지식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화해에 기여한다. • 언어와 텍스트의 힘, 아름다움, 예술성, 그리고 개인과 사회 및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한다. • 언어를 사용하여 대인 관계에서, 문화 간에, 세계적으로 정보를 디자인하고 공유 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자국어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빅 아이디어(Big Ideas)’, ‘학습 기준(Learning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사고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으로 구성된다.⁷⁾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핵심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고 구현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역량은 모든 교과와 학년에서 동일하게 제시된다. 특히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의 최상단에 지속적으로 적시됨으로써 그 위상을 확인시키고 학습의 전반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빅 아이디어’는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과정 역량을 경험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일반화 및 원리로, 심층적 학습의 “aha!”, “so what?”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전략, 연결 구축, 정체성, 다양한 관점 및 문화 인식 등과 같은 개념과 역량을 반영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학습 기준’은 ‘교육과정 역량’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역량’은 학생들이 얻은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설명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교과가 지향하는 일반적인 역량에 가깝기보다 언어활동에 필요한 기능이나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을 문장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데, 크게 이해와 표현 두 분야로 나뉜다. 이해 분야는 읽기, 듣기, 보기와 관련됨을, 표현 분야는 쓰기, 말하기, 재현하기와 관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 가지 기능이나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해하기와 연결’은 텍스트 탐구, 관점 인식,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 문학 탐구, 원주민

7) 의사소통 역량은 정보, 경험, 아이디어를 알리고 교환하며 세계를 탐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고 역량은 지적 발달과 관련된 지식, 기능, 과정으로 특정한 사고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 습관이나 상위인지도 포함하는데,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하위 역량으로 둔다. 개인적·사회적 역량은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으로 개인으로서 성공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보살피며 세계의 목표를 찾고 달성하는 능력이다. 개인적·사회적 역량은 긍정적인 개인적·문화적 정체성, 개인적 인식과 책임감, 사회적 인식과 책임감을 하위 역량으로 포함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5).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이해 국면에 필요한 기능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제시한다. ‘생산하기와 의사소통’은 아이디어의 교환, 계획과 창작, 스타일의 개발, 독창적인 텍스트의 생산 등 실제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관련 활동을 제시한다.

‘내용’은 교육과정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나타내며, ‘내용’에 제시된 항목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역량에 적용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내용’은 ‘이야기/텍스트’, ‘전략과 과정’, ‘언어 특성, 구조, 규칙’을 하위 범주로 가지며,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을 목록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야기/텍스트’는 다양한 이야기와 텍스트의 형식, 기능, 장르, 특징, 요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략과 과정’은 읽기·구어·메타 인지 전략과 쓰기 과정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을 포함한다. ‘언어 특성, 구조, 규칙’은 문법, 문장 구조, 문단 구조, 언어 관습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을 포함한다.

3.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 ‘빅 아이디어’의 특징

BC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학문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 원리 및 이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 영역에 대한 이해의 중심에 있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맥락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고립된 정보나 단편적인 사실 정보가 아니며,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을 돋고, 다른 학문 분야나 학습 분야를 관통하는 주제로 전이가 가능한 아이디어이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빅 아이디어는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과정 역량을 경험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일반화 및 원리(B.C. Ministry of Education, 2018)’라고 명시한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견준다면, BC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는 핵심 개념과 그와 관련

된 원리를 포함하며 역량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등을 포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빅 아이디어가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며, 학습의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고 언급하고 있다. BC주의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는 학습 범위와 깊이의 확장, 학습의 지향, 학생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를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바, K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

학년	빅 아이디어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이야기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돋는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그림과 단어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을 공유한다. ·언어로 놀이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것을 돋는다.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도한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이야기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돋는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그림과 단어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을 공유한다. ·언어로 놀이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것을 돋는다.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도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이야기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우리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족, 우리의 공동체와 연결시킨다.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을 공유한다. ·언어로 놀이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것을 돋는다.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이야기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텍스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돋는다. 이야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도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야기와 텍스트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한다. 언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한다. 언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과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다르게 이해한다. 텍스트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과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다르게 이해한다. 텍스트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

첫째,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영역보다 상위 층위인 학년별 교육과정 서두에 제시된다. 즉 영역별 빅 아이디어가 아니라 교과 차원의 빅 아이디어를 선정한 것이다. 읽기, 듣기, 보기, 쓰기, 말하기, 재현하기 등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이 통합된 상태로서 총체적인 언어 활동에 대한 영속적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자국어 교과 학습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해를 지향해야 하는지, 낱낱의 기준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다.

둘째,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은 자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소수의 빅 아이디어를 엄선한다. 학년별로 빅 아이디어는 5-7개씩 선정되어 있지만, K학년부터 9학년까지 10년 동안 이해해야 할 빅 아이디어는 총 9개에 불과하다. 자국어 교육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빅 아이디어를 반복 제시하기도 하고, 학년 간 연계성과 계열성을 추구하기 위해 유사한 맥락에서 심화·발전시켜 제시하기도 하며, 저학년군 또는 고학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소수의 빅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예컨대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K학년부터 9학년까지 반복된다. 한편 텍스트 이해의 관점과 관련된 빅 아이디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확장된다.

〈표 2〉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 확장 사례

K-2	3	4-5	6-7	8-9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과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다르게 이해한다.

이해의 대상 측면에서, K부터 3학년까지는 ‘이야기’를 다루지만, 4학년부터는 ‘텍스트’로 자료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해의 내용 측면에서, 3-5학년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하지만, 6-7학년에서는 다

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사고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심화되며, 8-9학년에서는 세계관이나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또한 ‘이야기와 텍스트는 그림과 단어를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K학년과 1학년에만 제시되지만, ‘텍스트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8학년과 9학년에만 제시된다. 이처럼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은 자국어 교과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소수의 빅 아이디어를 엄선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학습 범위와 깊이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돋는다.

셋째,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 역량을 반영하여 문장형으로 진술된다. BC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빅 아이디어가 교육 내용과 역량을 종합할 수 있는 일반화 및 원리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것을 단어로 제시하지 않고, 교육과정 역량에 대한 학습 기준과 내용에 대한 학습 기준을 통해 이해해야 할 원리를 평서문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와 같은 빅 아이디어는 ‘텍스트’라는 주요 개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기능이나 전략을 반영한 일반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자국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개별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일반화하여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 교과의 학습 내용이나 활동의 필요성, 중요성, 의의를 보여준다. BC주 자국어 교과 빅 아이디어에는 ‘언어, 관점, 다양성, 세계와의 소통, 연결, 방법’ 등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데, 빅 아이디어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명제가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을 학습했을 때 얻게 되는 영속적 이해로서 그 역량의 중요성 및 의의를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연결’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빅 아이디어는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빅 아이디어는 학습자들이 단위 수업

시간에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이 아니라, 단위 학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어 수업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의 중요성과 역량 함양의 의의에 대한 메타 인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술된다.

다섯째,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핵심 역량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핵심 역량과 빅 아이디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빅 아이디어와 핵심 역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예컨대, ‘텍스트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돋고, 다른 사람 및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나 ‘언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와 같은 빅 아이디어는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다. ‘언어와 텍스트는 창의력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와 같은 빅 아이디어는 사고 역량과 관련된다. ‘듣고, 읽고, 본 것에 대한 질문은 교육 받은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기여한다.’는 개인적·사회적 역량 함양에 기여한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이나 교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역량을 분명히 하고, 그것과 관련된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 내용 설계의 조직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빅 아이디어에 포함된 핵심 개념을 설명하거나 빅 아이디어 명제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교화(elaborations)’ 정보를 제시한다. BC주 교육과정은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이므로 상세 정보는 하이퍼링크 형태로 제시되는데, 중요한 용어에 대해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깊이와 폭, 의미,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그 예시는 해당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B.C. Ministry of Education, 2018). 빅 아이디어가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고려한 문서상의 항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실 수업 변화에 실체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IV.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 설정 및 활용 방안

1. 국어과 ‘빅 아이디어’ 설정 방안

교과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쉽게는 기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각 성취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 요소나 원리를 수렴하고 일반화하여 빅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가르쳐왔던 국어 교육 내용 요소들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는 방식도 가능하며,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핵심적인 것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빅 아이디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성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빅 아이디어는 심층적 학습을 추구하여 학습 경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과 학습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제안된 것으로, 작업의 용이성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빅 아이디어는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을 단순히 상위 수준의 지식으로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상위어로 추상화된 교과 기초 개념과 빅 아이디어는 염연히 구분된다(이경건·홍훈기, 2017). 교과 내 영역주의 현상이 심한 국어 교과의 경우, 세부 전공 영역 간 입장과 배경이 달라 숙의 과정에서 플랫폼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고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상대적 중요도를 판정하여 핵심적인 것을 선별하는 방식도 논란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빅 아이디어의 본래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빅 아이디어다운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Wiggins & McTighe(2005)는 기능 교과에서 빅 아이디어는 기능의 가치, 기능의 전략적 이슈, 기능이 작용하는 이유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량은 행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며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도 필요하듯이(류성창, 2012),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 내용이 기능이라 하더라도 기능은 단순한 반복 훈련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필요성,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Wiggins & McTighe(2005)는 빅 아이디어는 기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라고 하였다.

결국 국어과 빅 아이디어는 국어과 고유의 지식·기능·태도를 제대로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자가 언어활동, 언어, 언어 문화에 대해 가져야 하는 영속적 이해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는 국어과 고유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워야 할 필요성, 중요성, 의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 기능이나 개별 영역의 효용 가치를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국어 교과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어과 본질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 교과 역량 또는 핵심 역량과의 유기성도 확보해야 한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도 핵심 역량과 연계 속에서 교과의 주요 개념 및 교육과정 역량이 자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나 의의를 제시하여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영속적 이해를 보여준다. 교과 교육 내용 설계의 조직 원리가 되는 빅 아이디어를 우선 설정하는 방식은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고부담 설계 방식이다. 대단히 지난한 과업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국어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숙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빅 아이디어의 활용 취지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접근 방식이다.

이와 같은 빅 아이디어는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식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 여기서 ‘이해’는 인지적 측면에 대한 이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추론’과 ‘전이’로 구체화되는 Wiggins & McTighe(2005)의 understanding이다. ‘의미 있는 추론’이란 사실이나 기술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숙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들 속에 내재된 상호 관련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며, ‘전이’란 학습한 것을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활동의 본질과 언어활동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적인 인식, 즉 언어활동에 대한 메타 인식과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는 상위 언어적 능력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언어 능력 발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국어 교과를 학습해야 할 가치, 국어 교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게 되므로, 학습자들은 국어 수업에 대한 내적 동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빅 아이디어를 설정할 때, 지식이나 원리는 잠정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지식도 그 이면에는 특정한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Young(2008)은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객관적인 지식이란 해당 분야의 연구자 및 학자 등 전문가 공동체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친 검토와 비판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그 지식은 틀릴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다. 객관성은 절대성과 다른 것으로, 지식을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소경희, 2015: 206-207). 빅 아이디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관점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설득력 있는 것도 맥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정혜승, 2016: 41-43). 빅 아이디어로 선정한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Milligan & Wood, 2010: 493-495; 정혜승, 2016: 43 재인용). 학습자들은 새로운 관점과 맥락에 노출되면서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비판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어과 ‘빅 아이디어’ 활용 방안

국어 교과에서 빅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를 왜곡하지 않을 만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자 빅 아이디어 활용의 선결 조건으로서 빅 아이디어의 설정 층위, 설정 과정, 진술 형태 등을 제언하다.

첫째, 빅 아이디어는 교과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 층위가 아닌 교과 층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처럼, 빅 아이디어가 국어 교과의 정체성과 국어 교육을 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를 보여주면서도 영역의 통합 매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과 차원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해야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처럼 영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영역별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할 경우,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선정되지 않고 영역 내 주요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이 선정될 가능성 있다. 천경록(2017: 59)은 교과를 구성하는 영역의 핵심 개념을 모은 것이 그대로 교과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통합 개념으로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영역 내부적으로 영역 내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영역 간 내용을 통합하고 영역을 가로지르는 빅 아이디어를 설계하여 총체적인 국어 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영역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빅 아이디어가 아니라 영역별 차별성을 넘어서 각 영역을 관통하고 국어 교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빅 아이디어는 엄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소수의 핵심적인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빅 아이디어는 교육 내용 선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조직 원리이다. 양의 감축과 같은 피상적인 내용 적정화를 위해 취사선택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을 염선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는 학년별로 5-7개가 제시되지만, 그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총 9개의 빅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반복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심화·확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무려 85개의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 아무리 내용 재구조화의 관

점에서 출발했더라도 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싶은 만큼 많이 선정하게 되면 빅 아이디어다운 빅 아이디어를 추출하기 어렵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도 미국은 7개, 호주는 6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6개의 과학과 핵심 개념이 선정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35 개의 ‘핵심 개념’과 64개의 ‘일반화된 지식’이 설정되어 있다. 과학과는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념을 선정하기보다 하위 위계에 있는 주요 개념을 선정했다고(임유나·홍후조, 2016: 284)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왔던 각종 용어나 국어 활동, 국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기를 바라지 말고, 교과의 가치를 입증하고 타 교과로의 전이에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소수의 빅 아이디어를 엄선해야 한다.

셋째, 빅 아이디어의 진술 형태를 단어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그것의 진술 형태를 단어로 고정하고 있다. 하지만 Wiggins & McTighe(2005)는 빅 아이디어의 예시로 ‘적응’, ‘체계에서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 ‘유용한 모델을 발견하여 문제 해결하기’, ‘정의(justice)를 정의(define)하기 위한 도전’, ‘작가 또는 화자로서 청자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만큼(이경건·홍훈기, 2017: 5), 빅 아이디어는 개념뿐만 아니라, 원리, 질문, 주제, 가정, 논쟁과 관점, 이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빅 아이디어는 특정 교과는 물론이고 그 이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나 삶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작용하고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문장이 된다. 교과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교과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물음의 답이 빅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답은 개념(concept)의 형태가 아닌 명제적 진술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 BC주의 빅 아이디어도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근본 개념(fundermental concepts)’,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에서는 ‘교차 개념(crosscutting concepts)’은 단어형이지만, 캐나다 온

타리오 주 ‘빅 아이디어(big idea)’,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에서는 ‘학문적 핵심 아이디어(disciplinary core idesa)’, 호주의 ‘핵심 개념(Key concepts)’, 영국의 ‘빅 아이디어(big ideas)’는 문장형이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뉴저지,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빅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명제의 형태로 진술된다(이화영, 2017). 빅 아이디어의 형태를 고정하는 것은 빅 아이디어 애초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진술 형태를 고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넷째, 빅 아이디어라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면, 그것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대체 용어를 모색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는 국어 교과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상하면서도 영역 간·교과 간 통합의 연결 고리의 성격을 갖는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핵심 개념’과 관련한 혼란은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의 불분명함과 개별 교과의 요구에 의한 의미 범위의 확장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희경(2016)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진들의 면담 기록을 살펴보면, ‘개념(concept)’이라는 용어가 간 학문적 통합을 위한 조직자 또는 연결고리로서 빅 아이디어, 또는 근본 원리로서 빅 아이디어를 추출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핵심 개념’이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라는 용어의 일상적 의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빅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핵심적인 교육 내용들을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때, ‘핵심 개념’이라는 용어는 핵심 원리, 핵심 기능, 핵심 태도 등의 의미까지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국어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최대한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용어를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빅 아이디어의 의미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만한 번역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빅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혼란을

예방하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빅 아이디어의 두 가지 의미 속성인 근본 개념과 통합 개념을 동시에 추구하며 하나의 용어로 제시할 것인지, 두 가지 개념을 별도의 층위로 분리해서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빅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원리로 채택한 해외 교육과정 중 캐나다 BC주는 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빅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한다. 반면 호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영국,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간학문적 통합 개념을 추구하는 핵심 개념과 그것을 교과의 맥락으로 구체화하는 핵심 개념들을 별도로 설정한다. 예컨대 미국의 crosscutting concepts과 disciplinary core ideas, 캐나다 온타리오의 fundamental concepts과 Big idea, 호주의 Key ideas와 Key concepts, 영국의 key ideas와 big ideas에서 전자는 간학문적 빅 아이디어에 가까우며, 후자는 그것이 교과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로 구체화되는지를 문장의 형태로 제시한다. 간학문적 빅 아이디어와 교과 맥락으로 재해석한 빅 아이디어를 구분해야 한다면 별도의 항목과 용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빅 아이디어의 의미,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가 기준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스키마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체계라 교육과정 독자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예상하면서도(김창원 외, 2015: 120),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진들의 입장은 공식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에서도 ‘핵심 개념’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 개발진 내부에서 합의한 명쾌한 정의가 없었던 탓일 수도 있으며, 종론의 설명에 명료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어과만의 별도의 조작적 정의가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캐나다 BC주의 경우 용어 해설이라는 별도 문서를 통해 빅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자국어 교육과정 서두에서도 그 의미를 자국어 교과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도 빅 아이디어가

교육과정 항목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수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캐나다 BC주 이외에 빅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활용한 국가 수준 및 주 수준 교육과정에서도 새로 도입된 개념에 대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해외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 김지현·정아준(2017)은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바,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최진영·장혜인(2016)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회과 교육과정, 호주 사회과 교육과정, 미국의 C3 Framework에서는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중요성, 관련 탐구 질문 등을 제시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C3 Framework에서는 핵심 개념의 이해 도달점을 학년군별로 계열화하여 학년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한다(최진영·장혜인, 2016).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독자는 핵심 개념이나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빅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여 교육과정 문서를 접하는 교사 및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문식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빅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학문 분야에서 상위 개념으로 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은 학문 고유의 논리성과 체계성에 따라 교과 내용 지식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추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빅 아이디어로 할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설명력과 전이력이 강한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이나 학문 분야 간 내용을 통합하는 조직자 차원에서 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내용들을 관련짓기 때문에 결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발자의 의도에 따른 이견이 존재한다. 교과의 정체성과 근본 가치를 고려하여 교과 학습에서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교과 교육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교과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즉 빅 아이디어에는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교육적 판단과 의도가 반영되므로, 참여자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을 대비하여, 빅 아이디어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방안과 빅 아이디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과 교육과정 충위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구체화 한 연구가 활발한 과학과의 경우와 국어 교과의 관점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폈다. 그 결과, 국어과 빅 아이디어는 영역 및 교과 간 연계를 추구하는 통합 개념이자 국어 교과의 정체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근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낱낱의 사실, 기능, 원리, 태도 등을 연결하고 관통하는 중핵적 내용으로 국어 교과의 근본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교과나 비교과 영역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자국어 교과 교육과정 중 빅 아이디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BC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는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과정 역량을 경험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일반화 및 원리이

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는 영역별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차원에서 제시되며, 자국어 교과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언어, 관점, 다양성, 세계와의 소통, 연결, 방법’ 등의 개념과 교육과정 역량을 반영하여 문장의 형태로 진술되어 있었다. 또한 K학년부터 9학년까지 총 9개의 소수의 핵심적인 빅 아이디어를 염선하였으며, 그것을 학년에 따라 반복하거나 심화·확장하여 학습의 범위와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설정 및 제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빅 아이디어는 핵심 역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사소통에 능통한 학습자가 언어활동에 대해 가져야 할 영속적 이해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본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필요성, 중요성, 의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성취기준을 포괄하기 위해 수렴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설계의 조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설정되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는 첫째, 빅 아이디어는 영역 차원이 아닌 교과 차원에서 설정해야 하며, 둘째, 빅 아이디어는 엄격성의 관점에서 소수의 것이 염선되어야 한다. 셋째, 빅 아이디어의 진술 형태를 단어 형태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넷째,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핵심 개념’보다 적확한, 빅 아이디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대체 용어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빅 아이디어의 의미,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 및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 참조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 합리적인 속의를 촉진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핵심 개념’의 근원이 되는 빅 아이디어로 초점을 옮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국어과 빅 아이디어의 정의, 설정 방식,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모든 국어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무엇을 국어과 빅 아이디어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빅 아이디어를 국어과 교육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구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1.31. 투고되었으며, 2019.2.1. 심사가 시작되어 2019.3.11. 심사가 종료 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5),『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세종: 교육부.
- 권점례·이경언·민용성·김현미·김기철·김현정(2018),『초·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국어, 사회, 수학, 체육,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RRC 2018-10)』,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규훈(2015),「응복합 교육을 위한 생태언어학 기반 국어과 빅 아이디어 제안」,『교육과정평가 연구』18(3), 29-54.
- 김지현·정아준(2017),『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국제 비교-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한국과학교육학회지』37(1), 215-233.
- 김창원(2014),『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논의와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계열적 구조화』,『국어 교육』148, 1-32.
- 김창원·가은아·김경주·남민우·서영진·강보선·구본관·김규훈·김근호·김유미·김잔디·김정우·김혜정·류수열·민병곤·박기범·박영민·박재현·박종훈·서유경·안부영·양경희·오리사·이재승·장은주·전은주·조재윤·최홍원·하윤옥(2015),『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국어과 교육과정(연구보고 CRC 2015-25-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류성창(2012),「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근거로서 인지 및 비인지 역량의 관계」,『교육과정평가연구』30(3), 51-69.
- 박영민(2016),『2015 국어과 교육과정 작문 영역의 쟁점과 과제』,『국어교육학연구』51(1), 63-87.
- 박희경(2016),『교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구성 방안의 쟁점과 개발 과정의 개선 과제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인식 및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담이·박은미·윤희정·김지영·이윤하·박지은·송주연·동효관·심병주·임희준·이현숙(2013),『Big Idea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틀 설계』,『한국과학교육학회지』33(5), 1041-1054.
- 서영진(2019),『국어과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 탐색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청립어문교육』69, 출판예정.
- 소경희(2015),『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의 쟁점 탐색』,『교육과정평가 연구』33(1), 195-214.
- 이경건·홍훈기(2017),『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핵심 개념'의 의미 변화 과정 분석』,『교육과정평가연구』20(2), 1-30.
- 이홍우(2007),『교육의 목적과 난점』,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화영(2017),『수학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의미 고찰 및 국제 비교』,『학교수학』19(3), 495-511.
- 임유나·홍후조(2016),『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 내용 제시 방식 검토: 내용 체계를

- 중심으로』,『아시아교육연구』17(3), 277-302.
- 정혜승(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34(3), 29-50.
- 천경록(2017), 「국어과 ‘핵심개념’의 의미 탐색」,『청람어문교육』63, 41-65.
- 최진영·장혜인(2016), 「캐나다 온타리오와 호주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미국 C3 Framework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 관련 내용 분석 : 역사 영역을 중심으로」,『교과교육학연구』20(5), 407-423.
- 한혜정·이주연(2017), 「학문중심 교육과정 및 이해중심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이해」,『교육과정연구』35(3), 203-221.
- 홍후조(2012),『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B. C. Ministry of Education(2015), Curriculum overview, B. C. Ministry of Education, 검색일자 2018. 12. 3., 사이트 주소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overview>.
- B. C. Ministry of Education(2018), English Language Arts Introduction, B. C. Ministry of Education, 검색일자 2018. 12. 3., 사이트 주소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english-language-arts/core/introduction>.
- Bruner, J. S. (2006),『지식의 구조와 교과』, 이홍우(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60, 1971).
- Milligan, A. & Wood, B. (2010), “Conceptual understanding as transition points: Making sense of a complex social world”,*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2(4), 487-501.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9-10: Scienc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검색일자 2018. 12. 3., 사이트 주소 http://www.edu.gov.on.ca/eng/curriculum/secondary/science910_2008.pdf.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Young, M. (2008), *Bringing knowledge back in: From social constructivism in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 활용 방안 탐색 —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영진

본 연구는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을 대비하여, 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빅 아이디어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 교과 맥락에서 빅 아이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재해석하고, 캐나다 BC주 자국어 교육과정의 ‘빅 아이디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어과 빅 아이디어는 핵심 역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사소통에 능통한 학습자가 언어활동에 대해 가져야 할 영속적 이해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본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필요성, 중요성, 의의를 보여주는 맥락의 진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빅 아이디어를 국어과 교육과정에 활용할 때는 영역 차원이 아닌 교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엄격성의 관점에서 소수의 빅 아이디어를 엄선해야 하고, 그들의 진술 형태를 단어 형태로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빅 아이디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핵심 개념’보다 적확한 대체 용어를 모색하고, 빅 아이디어의 의미,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하며, 빅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어 국어, 교육과정, 캐나다 BC 주, 자국어 교육과정, 빅 아이디어, 역할, 활용

ABSTRACT

Exploring Ways to Utilize ‘Big Idea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 Based on an Analysis of BC’s English Language Arts
Curriculum in Canada

Seo You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oncrete ways to extract and utilize the Big Idea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interpreted the meaning and role of the Big Idea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g Ideas’ of the British Columbia’s English Language Arts curriculum in Canada. The Big Ideas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 should be presented in relation to core competencies, and able to act as organizer of content design. It should also be able to show the necessity,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activities. The Big ideas should be approached at a subject level, not at a sub-area level, and a small number of them should be selected from a viewpoint of rigidity. It should also be wary of limiting a statement form of the Big Ideas to a specific form.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find alternative terms that can represent a meaning of the Big Ideas.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meaning, function, and usage of the Big Ideas should be given. Further, a decision process and procedure for selecting them should also be validated for feasibility.

KEYWORDS Korean language, Curriculum, Canadian BC, English Language Arts curriculum, Big Idea, Role, Utilization